

핑크 패션 디자인 연구  
- 핑크 꾸뛰르(Punk Couture)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unk Fashion Design**  
- Focused on Punk Couture -

양윤선·진연니·노윤선\*

Yang, Yoon Seon · Chen, Yan Ni · Roh, Youn Sun<sup>+</sup>

동서대학교 디자인 전문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석사과정

동서대학교 디자인 전문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석사과정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부교수\*

Master's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Dongseo University

Master's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Dongseo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seo University<sup>+</sup>

**Abstract**

Young generations have a lot of effects on fashion in the 20st century and the influence is being increased gradually. Specially, punk style had a great deal of effects on fashion and its role comes to more spotlight than any times since the style is one out of high-fashion design sourc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grasp characteristics of punk couture through its analysis and to propose the possibility of new design creation applying such elements.

The study analyzed theoretical background and work cases of punk couture and manufactured punk couture fashion illustration.

A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fashion design of punk couture, they were as follows.

First, punk was introduced to high fashion after 1980s. As the results, its inner meaning disappeared and only imitation of its style was distinguished. Second, punk couture was expressed by mix & match between cutting and textile and coordination of punk-style elements. Third, as the results of analyzing work cases of punk couture in modern fashion, the resistant element as low-class culture was changed to polished features answering modern finality by being recreated and amended. Fourth,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ults, the study manufactured works. As the results, punk couture proposed the unlimited possibility, giving arts or fashion pursuing only beauty a fresh impact.

**Key Words** : Punk, Punk Couture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패션은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예술 등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변모를 거듭하며 발전해왔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패션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젊은 세대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하위문화가 자리를 잡았으며 점차적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복식 문화와 구별되는 핑크는 하위문화 스타일이 지배문화에 상향전파(Trickle-up Theory)된 패션의 절충현상으로써 젊은 세대에 의한 새로운 정신과 젊음의 문화를 의상을 통해 새롭게 나타낸 것이다. 이는 패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 하이패션 디자인 원천의 하나로서 그 역할이 어느 시대보다도 주목되고 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후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존 갈리아노(Jhon Galliano) 등의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은 꾸뛰르적인 터치를 가지고 디자인한 자신의 컬렉션에 핑크적인 감각을 결합시킴으로써 핑크 꾸뛰르 패션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디자이너들은 하이패션이 패션의 기준이라는 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미의식을 자극하여 획일화된 패션의 패턴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현재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움의 추구에 미적 가치를 둔 핑크 꾸뛰르 패션을 연구하는 것은 현대의 패션 환경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핑크 패션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엄소희, 1988)<sup>1)</sup>, (장애란, 1998)<sup>2)</sup>, (김순자, 2002)<sup>3)</sup>, (임은혁, 2003)<sup>4)</sup>, (김현정, 2005)<sup>5)</sup>, (김길라, 2005)<sup>6)</sup> 등이 있다. 엄소희와 김순자는 하위문화로써의 핑크 패션에 관한 연구로 현대 패션에서 창조성과 독창성에 관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써 핑크 스타일의 가치를 논하였으며, 장애란은 핑크 패션이 비비안 웨스트우드 작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기호적 해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임은혁은 21세기 트렌드를 예측하는 단서로써 핑크 패션을 연구하였으며, 김현정은 핑크 패션과 혼성모방의 관계를 조명하여 현재의 디자인 문화를 이해하고, 의상 제작을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의 창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김길라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을 통해 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표현 방법을 이용한 의상 제작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였다.

이상의 핑크 패션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하위문화로써의 핑크 패션과 내적 의미, 핑크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 분석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장적인 핑크 패션과 오픈 꾸뛰르의 고급 패션을 융합한 개념인 핑크 꾸뛰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핑크 패션의 발생 배경에서부터 현대의 핑크 꾸뛰르 패션의 분석을 통하여 현대 패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핑크 꾸뛰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를 응용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창출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핑크와 핑크 꾸뛰르의 개념을 토대로 핑크 꾸뛰르 패션 디자인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핑크와 핑크 꾸뛰르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둘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핑크 꾸뛰르의 작품 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핑크 꾸뛰르적 요소를 응용한 패션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이론적 배경과 분석을 위하여 학위논문, 학회지 논문, 단행본, 패션화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으며, 핑크 꾸뛰르의 사례 연구를 위한 사진 자료는 패션 화보, 인터넷을 중심으로 발췌하였다. 이를 토대로 핑크 꾸뛰르적 요소를 응용한 6점의 패션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특히, 핑크 패션이 하위문화로써 가지고 있는 외적 특징을 핑크 꾸뛰르의 채단, 소재의 믹스 앤 매치, 핑크적인 디테일을 통한 코디네이션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전개하였고, 개성화와 다양화를 지양하는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 II. 핑크

### 1. 핑크의 개념 및 특징

핑크란 ‘가치 없거나 하급의 것, 풋내기, 젊은 악한, 젊은 방랑자,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 고어로는 ‘매춘부’를 뜻하며 사회적 개념이 의미하는 모든 종류의 극단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는 어떠한 폭력 없이 이성한 복장, 폭발적인 음악 등으로 영국의 젊은이들이 순수하게 그들의 절망을 표현한 것이다.

제임스 레이버(James Laver)는 “핑크 복장은 메저키스틱(Masochistic)한 이면을 지니면서 예술을 파괴하는 폭주족(Hell's Angels)들의 오토바이 복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바짓가랑이는 사슬로 연결하고 안전핀을 귀와 심지어는 코에까지 꿰었다.”<sup>8)</sup>라고 핑크 패션을 묘사하고 있다. 핑크의 복식은 사회계층, 인종차별에 대한 무언의 항거, 미래에 대한 야망의 포기, 허무주의, 무질서주의, 무정부주의 등으로 표현되었고 종래의 복식 개념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 기존의 복식이나 원리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옷을 찢거나 구멍을 내고 옷핀과 체인 줄로 트리밍을 대신하였으며 옷을 물질만능에 대한 도전이라 하여 인간성 말살을 고발하였다.<sup>9)</sup>

핑크의 스타일은 락커의 모터바이크 재킷, 스킨헤드가 신었던 독일군화와 사이키델릭의 인공적인 컬러 등 다양한 집단들에게 영감을 받아 나름대로의 방식을 해체하고 절충하여 독특한 스타일로 창조되었다. 이렇듯 부적절하게 서로 병치된 오브제는 핑크의 DIY(Do-It-Yourself)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한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발상하게 하였다.<sup>10)</sup> 이러한 핑크는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던 과거의 미(美)의식에 충격을 주었다. 이는 기존에서 벗어난 새로운 감각을 던져주는 촉매제로서 일반 예술이나 복식에 신선함을 던져준 것으로 이것은 실로 예술에 있어 모더니즘만큼이나 패션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핑크의 사회·문화적 발생 배경

핑크라는 이름은 핑크 록 음악(punk rock music)으로부터 왔으며 따라서 음악과 관련이 많고 사회적 개념이 의미하는 모든 종류의 극단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이므로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다.<sup>11)</sup> 완전한 문화현상으로써 핑크의 등장은 1976년 영국의 록 밴드인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에 의해서이며 시드 비셔스(Sid Vicious)가 가세한 이후 핑크 록은 더욱 확산되었다. 이 시기의 서양 각 국은 경제적 황금기를 마감하고 저성장 과 만성적 실업, 빈곤이 증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실직한 젊은이들은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지닌 형태를 원하게 되었고, 이는 소수집단의 좌절, 절망, 분노, 공포를 그들의 스타일에 풍자적으로 표현하였다.

즉, 펑크는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거치면서 그 동안 무시되어왔던 영국의 청년 노동자 계급들이 그들의 내적 심리를 표현하는 반문화적인 운동이다. 이때의 영국 펑크는 음악차원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문화현상이었고, 1976년을 펑크의 원년이라 말할 수 있다.<sup>12)</sup>

한편으로 펑크는 히피 낭만주의의 반작용이었다. 펑크 패션은 공격적인 금속 징, 검정색 가죽재킷, 기괴한 본디지(Bondage) 의상, 형광 물질 등으로 히피의 모토인 사랑과 평화 대신 섹스와 폭력을, 자연적 소재 대신 플라스틱과 같은 인공물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펑크는 기존에서 벗어난 새로운 감각을 던져주는 촉매제로서 추한 것이나 일상생활의 하찮은 것,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예기치 못한 물건들로부터 새로운 미를 발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된 젊은이들에 의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괴상하고 그로테스크한 옷차림의 펑크족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렇게 탄생한 펑크는 1980년대까지 유행했다.

### III. 펑크 꾸뛰르

#### 1. 펑크 꾸뛰르의 개념 및 발생 배경

1990년대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고도로 산업화된 물질문명과 개인주의로 치닫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과거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별히 어떠한 양식이 정해지지 않고 다양한 양식이 혼합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20세기 후반 패션에서는 하위문화 스타일의 이미지를 차용, 복제, 재조합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펑크 패션은 하위문화 스타일에 그치지 않고 혁신적으로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디자인의 모티브를 제공하면서 지금까지 프레타 포르테(Pret-a-porter)나 오프 꾸뛰르(Haute couture) 컬렉션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펑크 꾸뛰르(Punk Couture)는 펑크와 오프 꾸뛰르의 합성어로, 저항적인 펑크 패션과 오프 꾸뛰르의 고급 패션을 융합한 개념이다.<sup>13)</sup> 이것은 오프 꾸뛰르의 풍요로운 재단법이나 코디네이션과 세부장식에 펑크가 가지고 있던 의미는 제거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소재로서 펑크의 이미지만 차용되어 펑크 꾸뛰르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펑크는 영국의 청년 노동자 계급들이 그들의 내적심리를 표현하는 반문화적인 운동이었으며 기존의 복식, 원리를 파괴하는 방법이나 옷핀, 편칭장식, 쇠사슬 등의 액세서리의 장식을 통하여 표현되어진다. 이에 반해 펑크 꾸뛰르는 펑크가 가지고 있던 저항적 의미는 제거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소재로서 펑크 이미지만 차용되어 재단, 소재의 믹스 앤 매치, 펑크적인 디테일을 통한 코디네이션을 통해 펑크 꾸뛰르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따라서 펑크와 펑크 꾸뛰르의 특징 비교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펑크와 펑크 꾸뛰르의 특성과 차이

	정신적 특성	기호적 특성
펑크	영국의 청년 노동자 계급들이 그들의 내적 심리(좌절, 절망, 분노, 공포)를 표현하는 반문화적인 운동	기존의 복식·원리를 파괴하는 방법, 옷핀, 편칭장식 등의 액세서리 장식
펑크 꾸뛰르	펑크가 가지는 저항적 의미는 제거되고 펑크의 이미지만 차용하여 재창조·재수정	재단, 소재의 믹스 앤 매치, 펑크적인 디테일을 통한 코디네이션

## 2. 핑크 꾸뛰르의 표현 방법

### 1) 재단 (cutting)

핑크 꾸뛰르는 정교하고 독특한 커팅과 테일러링을 통해 동시대적인 트렌드를 뒤엎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새로움을 추구하였다. 또한 신체를 인위적으로 과장하기 위해 특정 부위나 전체를 확대·왜곡·제한시키는 극단적인 표현 방법을 통해 인체미와 복식미의 해체를 가져왔다.<sup>14)</sup> 즉, 핑크 꾸뛰르는 정교한 커팅의 방법과 극단적인 표현 방법을 통해 과거의 진부한 형식과 미의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실험하는 혁신적·극단적·실험적인 디자인으로 전개되어진다.

<그림 1>은 소재를 연속적으로 접고(folding) 주름(pleating)을 잡는 방법으로 신체와 의복 사이에 공간을 만듦으로써 기존의 복식 형태를 깨고 비형식·비정형·비대칭적인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

### 2) 소재의 믹스 앤 매치 (Mix & Match)

#### (1) 소재의 변용

핑크 꾸뛰르는 변용된 소재를 통해 의복 재료의 적절성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도전하여 재료가 갖는 한계성을 개방하였다.<sup>15)</sup>

<그림 2>는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iela) Artisanal Collection의 작품 ‘Wigs Jacket’으로 가발을 인위적으로 찢고 다시 꿰매는 등의 표현 방법을 통해 다른 소재와 패치워크하여 소재의 적절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기존의 관념에 도전하였다.

<그림 3>은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 ‘Football Jacket’으로 가죽 재킷에 인위적으로 분해한 축구공을 덧대어 표현함으로써 소재의 변용을 통해 핑크 꾸뛰르적인 감각을 나타내었다.

#### (2) 소재의 혼합

핑크 꾸뛰르는 종래의 관념을 무시한 이질적인 소재의 혼합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는 현대적 디자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나타내었다. 이는 소재 사용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영역간의 경계를 허물어 무한한 소재의 원천을 찾아내고 기존 패션에 도전하는 이색적인 미를 추구함으로써 소재가 갖는 한계성을 개방하였다.

<그림 4>, <그림 5>는 이질적인 소재들을 혼합시키는 방법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했다. 이는 패치워크를 통해서도 다른 소재와 컬러의 믹스 앤 매치를 보여주었다. 즉 다양한 소재의 믹스 앤 매치를 통해 자유롭고 혁신적인 새로움을 추구하는 현대적인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나타내었다.

### 3) 핑크적인 디테일을 통한 코디네이션

핑크의 기호적인 특징은 핑크적인 디테일, 즉 의복에 구멍을 내고 너털너털하게 찢는 등 기존의 복식, 원리를 파괴하는 방법이나 옷핀, 편칭 장식, 쇠사슬 등의 액세서리의 장식을 통하여 나타난다.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은 핑크 꾸뛰르 패션을 표현하기 위해 핑크의 기호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디테일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통해 전위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는 다양한 하위 문화적 요소들이 주류인 패션과 여러 가지 형태로 공존하여, 하위문화의 저항적 요소는 변화되고 본래의 색채가 퇴색되어 새로움의 추구로 나타

나게 된 것으로 현대의 목적성에 맞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6>은 존 갈리아노 '05 S/S collection 작품으로 지퍼를 하나의 장식 아이템으로 사용함으로써 핑크적인 디테일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통해 전위적인 디자인을 나타내었다.



<그림 1> Vivienne Westwood '08 F/W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2> Maison Martin Margiela 작품 (출처: Artisanal Collection)



<그림 3> Maison Martin Margiela 작품 (출처: <http://www.maisonmartinmargiela.com>)



<그림 4> John Galiano '05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5> Christian Dior '03 F/W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6> John Galiano '05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m>)

#### IV.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핑크 꾸뛰르 작품 사례

패션과 예술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 핑크는 하위문화가 지배문화에 상향전파되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교량 역할을 수행한 것이 비비안 웨스트우드, 장 폴 고티에, 존 갈리아노 등의 하이패션 디자이너였으며 핑크의 저항적 이미지와 오프 꾸뛰르가 지니고 있는 세련됨과 우아함을 융합하여 핑크 꾸뛰르 패션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독특한 커팅을 통해 기존의 복식 형식을 깨는 비형식·비정형·비대칭적인 실루엣을 보여주었으며, 다양한 소재의 믹스 앤 매치를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였다. <그림 7>과 <그림 8>은 새로운 커팅 방법을 통하여 어깨를 인위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신체의 특정 부위나 전체를 확대·왜곡·제한시키는 표현 방법은 의복이 몸에 잘 맞게 고정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형식과 미를 제시한다. 또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여러 가지 소재를 패치워크하여 서로 다른 줄무늬간의 독특한 조화를 보여주었다. <그림 9>

는 접고 주름을 잡는 방법을 통해 신체의 특정 부위를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가는 허리와 곡선의 윤곽을 드러내는 여성적인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이와 함께 이질적인 소재들을 혼합시키는 방법을 통해 소재의 새로움을 추구하였다.

<그림 10>은 소재의 믹스 앤 매치와 펑크적인 디테일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통하여 펑크 꾸뛰르의 상을 표현하였다. 이는 파격적으로 소재를 믹스 앤 매치하는 레이어드 기법을 사용하여 이질적인 소재인 쉬폰(chiffon)과 가죽을 조합시킴으로써 쉬폰 소재를 터프한 이미지로 변신시켰다. 또한 리벳, 새틴, 징, 펀칭 장식 등을 이용하여 펑크적인 느낌을 나타내었다.



<그림 7> Vivienne Westwood '06 F/W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8> Vivienne Westwood '07 S/S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9> Vivienne Westwood '09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0> Jean Paul Gaultier '07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m>)

## V. 작품 제작

펑크 꾸뛰르는 오프 꾸뛰르와 펑크의 합성어로, 오프 꾸뛰르의 고급 패션과 저항적인 펑크 패션을 융합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단, 소재의 믹스 앤 매치, 펑크적인 디테일을 통한 코디네이션을 이용하여 펑크 꾸뛰르 패션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 1. 작품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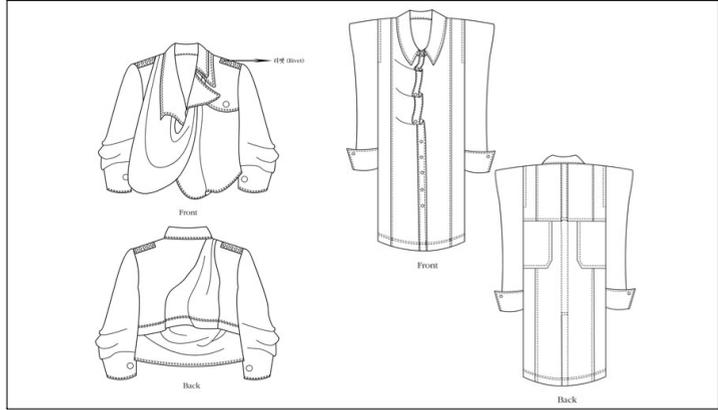
- 1) 구성 : 재킷(jacket), 셔츠(shirt)
- 2) 소재 : 마드라스(madras), 시어서커(seersucker)
- 3) 색상 : Gray, Milky-white, Violet, Sapphire
- 4) 디자인 특징 : 재단, 소재의 믹스 앤 매치
- 5) 작품 설명

펑크 꾸뛰르의 재단과 소재의 믹스 앤 매치 표현 방법을 이용하여 현대에 나타난 새로운 펑크 꾸뛰르 감각을 표현하였다. 타탄체크 패턴의 재킷과 스트라이프 패턴의 원피스를 매치하여 서로 다른 패턴의 소재 간의 독특한 조화를 표현하였다. 특히 재킷은 접고 주름을 잡는 방법을 통해 신체와 의복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비대칭적이

고 불규칙한 라펠(lapel)과 대담한 커팅을 이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그림 11> 작품 I



<그림 12> 작품 I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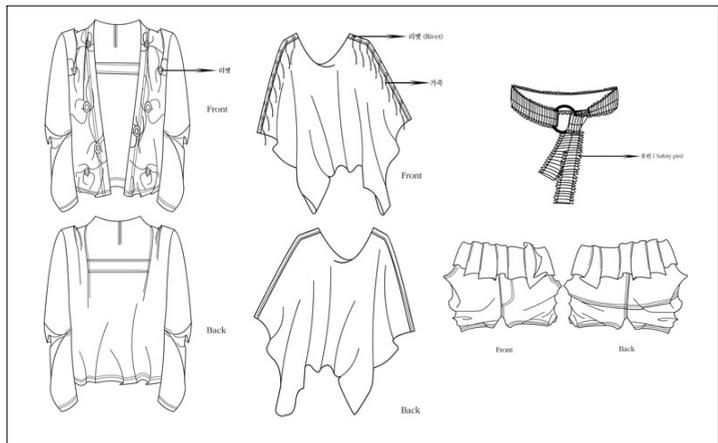
## 2. 작품 II

- 1) 구성 : 망토(cape), 재킷(jacket), 팬츠(pants), 모자(hat)
- 2) 소재 : 마드라스(madras), 인터록(interlock), 데님(denim), 리벳(rivet), 옷핀(safety pin)
- 3) 색상 : Gray, Black, White, Sea blue, Summer tan
- 4) 디자인 특징 : 재단, 핑크적인 디테일을 통한 코디네이션
- 5) 작품 설명

옷감을 접고 주름을 잡는 방법을 통해 풍부한 볼륨을 주어 과장되게 부풀린 소매의 조형적인 재킷을 디자인 하였다. 또한 의상과 함께 굵은 바늘, 옷핀을 매치하여 꾸뛰르적인 핑크풍의 의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13> 작품 II



<그림 14> 작품 II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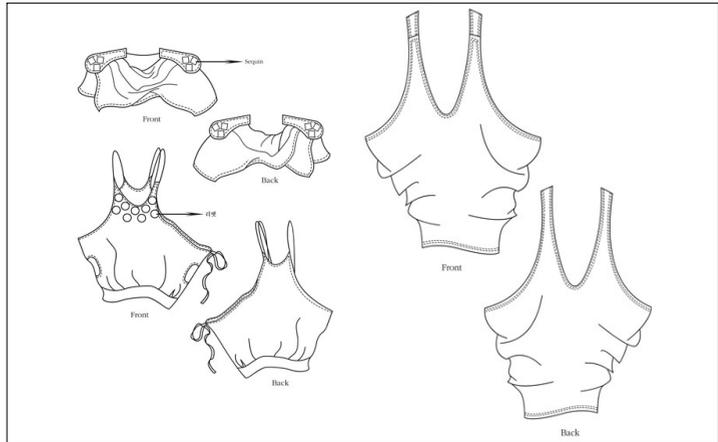
### 3. 작품 III

- 1) 구성 : 티셔츠(T-shirt), 원피스(one-piece), 모자(hat)
- 2) 소재 : 그랜체크(glen check), 타탄체크(tartan check), 인터록(interlock), 리벳(rivet), 새퀸(sequin)
- 3) 색상 : Ruby red, Forest green, Light gray, Summer tan
- 4) 디자인 특징 : 재단, 핑크적인 디테일을 통한 코디네이션
- 5) 작품 설명

작품 III은 1950년대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조형적인 실루엣의 모방을 통한 독특한 커팅 기술을 이용하여 어깨와 힙을 과장되게 부풀림으로써 모래시계형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또한 새퀸(sequin) 장식을 이용하여 어깨를 더욱 과장되게 표현하고 이러한 디테일을 통하여 핑크 꾸뛰르적인 감각을 표현하였다.



<그림 15> 작품 III



<그림 16> 작품 III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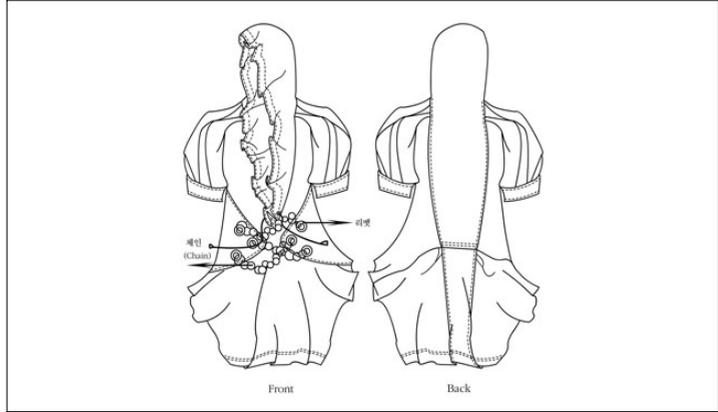
### 4. 작품 IV

- 1) 구성 : 원피스(one-piece)
- 2) 소재 : 타탄체크(tartan check), 인조 모피(fur), 리벳(rivet), 체인(chain), 가죽(leather)
- 3) 색상 : Metallic, Forest green
- 4) 디자인 특징 : 재단, 핑크적인 디테일을 통한 코디네이션
- 5) 작품 설명

스트링 장식을 이용하여 소매와 모자를 과장되게 부풀리고 과감한 커팅과 주름을 잡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체와 힙이 강조되는 여성적인 실루엣의 핑크 꾸뛰르 의상을 표현하였다. 허리에는 여러 겹의 실버 체인을 벨트처럼 두르고 길게 늘어뜨려 역동적이고 핑키한 느낌을 주었다.



<그림 17> 작품 IV



<그림 18> 작품 IV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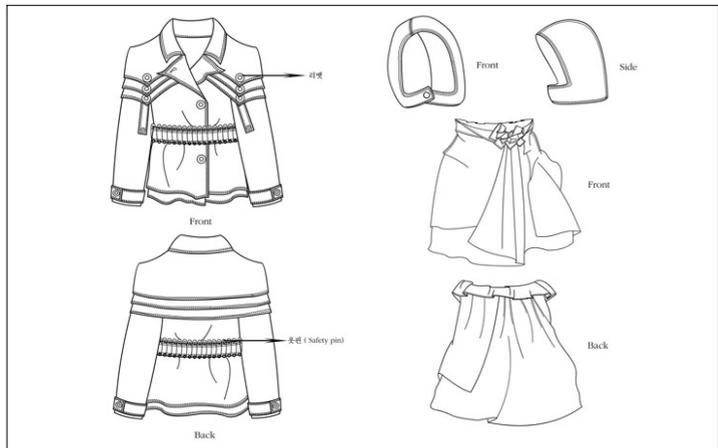
### 5. 작품 V

- 1) 구성 : 재킷(jacket), 스커트(skirt), 모자(hat)
- 2) 소재 : 복층직물(layered joined), 하운드 투스 체크(hound tooth check), 더블 니트(double knit), 리벳(rivet), 체인(chain), 가죽(leather)
- 3) 색상 : Black, White, Grape
- 4) 디자인 특징 : 재단, 핑크적인 디테일을 통한 코디네이션
- 5) 작품 설명

어깨를 강조하기 위하여 비대칭적으로 라펠(lapel)을 덧대어 3차원적인 기하학의 실제적인 감각을 나타내었다. 또한 어깨의 펀칭 장식과 벨트의 옷핀 장식을 통하여 핑크의 기호적인 감각을 디테일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전위적인 분위기의 핑크 꾸뛰르 의상을 표현하였다.



<그림 19> 작품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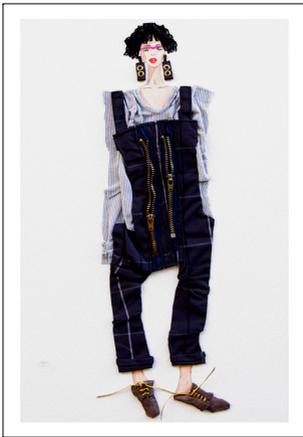


<그림 20> 작품 V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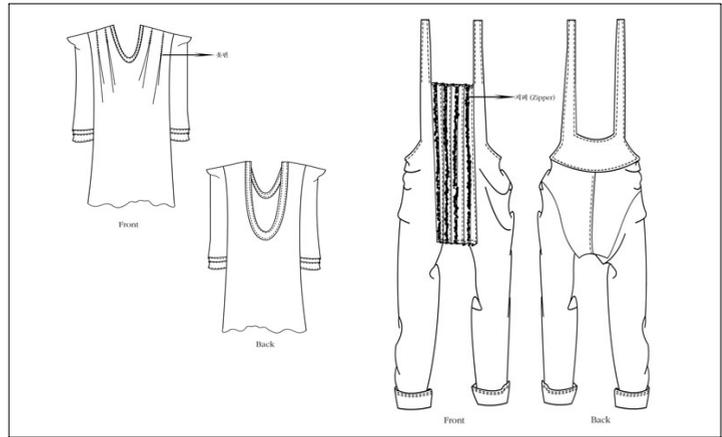
## 6. 작품 VI

- 1) 구성 : 오버롤즈(overalls), 티셔츠(T-shirt)
- 2) 소재 : 샴브레이(chambray), 인터록(interlock), 지퍼(zipper), 리벳(rivet), 옷핀(safety pin)
- 3) 색상 : Charcoal gray, Silver white
- 4) 디자인 특징 : 소재의 믹스 앤 매치, 핑크적인 디테일을 통한 코디네이션
- 5) 작품 설명

오버사이즈의 밑위가 긴 오버롤즈에 다양한 지퍼 장식을 통해 핑크 꾸뛰르적인 느낌을 나타내었다. 이는 꾸뛰르적인 핑크풍의 의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핑크의 기호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디테일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시도한 것이다. 또한 체크 패턴의 오버롤즈와 스트라이프 패턴의 티셔츠를 매치함으로써 다양한 패턴의 소재를 믹스 앤 매치시켜 소재의 새로움을 추구하였다.



<그림 21> 작품 VI



<그림 22> 작품 VI 도식화

## VI. 결론

본 연구는 핑크와 핑크 꾸뛰르의 발생 배경과 개념 및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핑크 꾸뛰르의 분석을 위하여 컬렉션, 패션 화보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핑크 꾸뛰르 패션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핑크 꾸뛰르 패션 디자인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1980년대 이후, 핑크 패션이 하이패션에 도입되어지면서 하위문화로써 가지고 있던 저항적 의식이나 허무주의적 모습은 사라지고 스타일상의 모방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핑크 꾸뛰르는 오피 꾸뛰르의 고급 패션과 저항적인 핑크 패션을 융합한 개념으로 혁신적인 커팅과 소재의 믹스 앤 매치, 핑크의 기호적인 특징을 반영한 디테일을 통한 코디네이션에 의하여 표현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핑크 꾸뛰르에 대한 작품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하위문화로서의 핑크의 저항적 요소는 변화되고 본래의 색채가 퇴색되어 재창조·재수정되었으며 현대의 목적성에 맞게 세련된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디자인 전개를 통해 핑크 패션에 오프 꾸뛰르의 고급패션을 융합시킴으로써 보다 시대적 상황에 근접하고 독창적인 새로운 패션 디자인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리벳, 옷핀, 새틴, 밧줄 등 핑크의 기호적인 특징을 반영한 디테일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이용하여 핑크의 이미지만을 차용하고 정교하고 독특한 재단, 소재의 믹스 앤 매치의 표현 방법을 통해 하위문화로서의 핑크 패션을 현대 핑크 꾸뛰르 패션으로 디자인할 수 있었다.

핑크 꾸뛰르는 오프 꾸뛰르의 고급 패션과 저항적인 핑크 패션의 융합한 개념으로 1980년대 이후 핑크 패션이 하이패션에 도입되어지면서 이들의 스타일적 경계는 보다 흐려지게 되었다. 특히 재단, 소재의 믹스 앤 매치, 핑크적인 요소의 코디네이션을 통하여 역사적·문화적으로 체계화, 관습화, 정형화된 기존의 관념들을 해체시키고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미를 추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핑크 꾸뛰르의 표현방법을 통해 새롭게 조합하고 구성하여 독특하고 창조적인 핑크 꾸뛰르 패션 디자인을 창출하였다.

이름다움을 추구하는 패션계에 신선한 충격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핑크 꾸뛰르의 후속 연구가 계속되길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1) 엄소희 (1988). Punk Fash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 장애란 (1998). 핑크룩이 반영된 Vivienne Westwood 작품의 기호적 해석, 복식, 39(-), pp.197-215.
- 3) 김순자 (2002). 핑크 스타일의 상징적 의미와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52(6), pp.139-164.
- 4) 임은혁 (2003). 21세기 전환기 하이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 핑크 룩을 중심으로, 복식, 53(2), pp.71-85.
- 5) 김현정 (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핑크패션에 대한 연구 : 혼성모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 김길라 (2005). 비비안 웨스트우드 디자인 연구 :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Philip Babcock Gove (1969).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Merrian Webster, p.1343.
- 8) James Laver (1985). Costume and fashion, Thames and Hudson, p.272.
- 9) 송민희 (2003). 현대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에 대한 연구 : 캐주얼웨어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8.
- 10) 김현정 (2005). 앞의 논문, p.12.
- 11) 손향미·박길순 (2005). 현대 핑크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11), p.1445.
- 12) 김현정 (2005). 앞의 논문, p.8.
- 13) 조규화 (1995).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p.623.
- 14) 김길라 (2005). 앞의 논문, p.67.
- 15) 김길라 (2005). 앞의 논문, p.68.